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8)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주요 관영매체는 7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시행세칙(포괄허가취급요령) 내용 중심으로, 추가 규제는 없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인용 보도(人民网, 中国新闻网)
-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의 내용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한 일본의 취지와 이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인용 보도¹⁾
 - * 일본 정부는 동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‘보복’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
- 또한 한국 보도를 인용하여 이번 개정안과 세칙 안에는 기존의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(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포토레지스트, 고순도 불화수소) 외에 추가된 품목이 없으나,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세를 자제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도²⁾
 - *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기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일반품목이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개별허가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
- 또한 한일 양국 매체를 인용하여 ‘일본 정부의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가’가 발표되었음에도 대한항공의 일본항편 운항 중지 및 축소, 일본 제품(의류/주류/자동차 등) 보이콧 등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라고 보도(第一财经)³⁾

□ [시장 반응]

1) 「本颁政令将韩国清出“白色清单” 韩国以牙还牙」, 『人民网』(2019. 8. 8)
2) 「韩媒：日未增加对韩出口限制品类 但不确定性犹存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8. 8)
3) 「日对韩核心材料出口“有条件”放行, 但日韩经贸仍凉意阵阵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8. 8)

-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일본 의존도,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해결 노력 등을 분석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나타냄(新浪财经).⁴⁾
-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
 - * 그러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예측하고, 규제가 시행되면(28일) 한국도 자급자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
-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소재 공급업체를 찾고 있음.
 - * 시장예측에 따르면 삼성, SK하이닉스의 수출규제 대상 소재의 재고가 현재 약 한달 반 정도 분량으로 추정하며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3분기 말부터 실질적인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
- 향후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의 반도체, OLED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산업에 발전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
 - * 그 예로 한국이 향후 1년간 20개의 핵심프로젝트관련 수입원 다원화 및 현지생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
 - * 또한 일본을 대체할 중국, 미국, EU 등 새로운 공급선을 찾고 있으며, 특히 삼성, SK하이닉스가 非일본기업이 생산한 불화수소를 실험 중에 있으며 그 공급선이 중국기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
4) 「日韩之争愈演愈烈, 中国半导体产业不能置身事外, 或迎来机遇」, 『新浪财经』(2019. 8. 8)